엠넷 '프듀48' '프듀X' 투표 조작 | 아이즈원·엑스원의 운명은?

케이블채널 엠넷의 '프로듀스48'과 '프로듀스X101'의 투표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이를 통해 발탁된 그룹 아이즈원(왼쪽)과 엑스원의 활동에 적신호가 켜졌다. 스포츠동아 DB

"조작그룹 해체"…그룹 와해 갈림길

아이즈원, 정규앨범 쇼케이스 취소
11일 방송 예정 '마리텔2'도 통편집
연예계 "비판 여론 커 활동 힘들 것"
일부는 "멤버도 피해자" 동정 여론

케이블채널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프듀X)과 '프로듀스48'(프듀48)의 순위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이를 통해 선발된 그룹 엑스원과 아이즈원의 활동이 불투명해졌다. 이들의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엑스원은 올해 '프듀X', 아이즈원은 지난해 '프듀48'을 통해 데뷔한 프로젝트 그룹이다. 하지만 '프듀X'의 문자 투표를 조작해 사기·배임수재 등 혐의로 5일 구속된 안준영 PD가 경찰 조사에서 '프듀48'의 결과도 조작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들의 공식 SNS에도 "조작그룹"이라는 조롱이 담긴 댓글들이 줄줄이 달리고 있다. 한 누리꾼은 7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이들의 데뷔는 채용 비리와 같은 맥락"이라며 지상파 방송 출연을 금지해 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결국 11일 첫 정규앨범 '블룸아이즈'를 내놓고 컴백하려던 아이즈원은 7일 일정 자체를 연기했다. 이와 관련해 앨범 발표일에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쇼케이스도 취소했다. 또 엠넷은 이들의 컴백쇼 '컴백 아이즈원 블룸아이즈'의 11일 방송 일정도 미뤘다.

이미 녹화를 마치고 11일과 18일 방송할 예정이었던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2' 역시 이들의 출연 분량을 모두 걷어내기로 했다. 또 다른 출연 프로그램으로 9일 방송할 예정인 tvN '놀라운 토요일'과 19일 방영하는 JTBC '아이돌룸' 관계자는 "경찰 수사 진행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은 엑스원도 마찬가지다. 8월27일 데뷔해 앨범 활동을 마친 이들은 16일 '2019 브이라이브 어워즈 V하트비트' 공연 라인업에 포함됐지만 실제 무대에 오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연예계 안팎에서는 이들의 활동이 사실상 아예 무산되는 것 아니겠냐는 시각도 나온다. 한 방송 관계자는 "워낙 비판 여론이 커 방송 출연이나 후속 활동은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귀띔했다.

아이즈원과 엑스원이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라는 시선도 나온다. 제작진과 일부 기획사의 부정행위와는 별개로 연습생 생활을 거쳐 데뷔를 위해 달려온 멤버들의 노력까지 '조작그룹'이라는 오명으로 폄훼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치밀한 조작극…CJ ENM은 정말 몰랐나?

개인만으로 조작 가능한 지 의심
엠넷 "CJ ENM 관여 확인 어려워"

'프로듀스X101'과 '프로듀스 48' 투표 조작 사태의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부 제작진만의 일탈과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넘어 방송사인 CJ ENM의 관여가 있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는 시선이 나온다.

연예계 안팎에서는 두 프로그램의 투표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연출자 안준영 PD와 총괄 기획을 맡은 김용범 책임프로듀서(CP)에 대한 처벌이 끝이 아니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향응을 제공받거나 모종의 거래 의혹 등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연습생들의 꿈을 담보로 이 같은 행위를 벌이는 동안 과연 이들의 소속사이자 프로그램 제작사인 CJ ENM이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을까 하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도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5일 CJ ENM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 회사가 이번 사건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관련 프로그램의 시청자 문자투표 참여가 유료로 이뤄졌고, 그 결과 조작을 통해 후보자들의 순위를 바꿔 그룹의 최종 멤버를 구성하는 것이 일부 제작진만의 시도로 가능한 일이겠느냐는 의심이다. 엑스원 등 프로그램이 배출한 그룹은 CJ ENM과 한시적인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의심은 더욱 합리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7일 "일부 제작진이 독단적으로 투표를 조작했다고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CJ ENM이 몰랐다면 직원 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엠넷 측은 이날 "방송사 관여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책임질 부분에 대해 책임지고 개선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女핸드볼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최태원 회장, 포상금 2억원 쾌척

최태원 회장

대한핸드볼협회가 7일 진천 선수촌에서 핸드볼 세계 최초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 대기록을 세운 여자 대표팀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격려했다.

대한핸드볼협회 최태원 회장을 대신해 길병송 부회장이 직접 진천 선수촌을 방문했다. 이달 말 일본 구마모토에서 열리는 세계여자선수권대회를 대비해 훈련 중인 여자 대표팀 강재원 감독과 선수들에게 선전을 당부하고 대규모 포상금을 지급했다. 선수에게는 각 1000만원씩이 돌아갔고 감독과 코칭스태프를 포함해 총 2억 원의 포상금이 주어졌다.

최 회장은 길 부회장을 통해 "여러분은 핸드볼의 역사, 현재의 주역, 미래 후배들의 희망이다. 정말 수고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한 대표팀을 격려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협회장으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도쿄올림픽까지 즐겁고 행복한 핸드볼 스토리를 만들어 보자"고 강조했다.

국가대표로서 자부심을 가지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최 회장은 "세계여자선수권대회는 체격과 체력이 뛰어난 유럽 선수들과의 힘겨운 경기가 되겠지만 물러서지 않고 부딪치는 선수단의 모습에서 국민들이 감동과 행복을 느낄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이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선수임을 항상 명심해 달라"는 메시지를 덧붙였다. 최 회장은 2008년 대한핸드볼협회장에 취임한 이후 핸드볼전용경기장 건립과 남녀 실업팀 창단, 핸드볼발전재단 및 핸드볼아카데미 설립 등 국내 핸드볼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